

천진불 동자승, 신나게 슷~골인

조계종 어청위·동련, 조계사서 동자승 축구대회 열어



동자승들이 공을 쫓으며 뛰어다니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이쪽으로 공을 차셔야죠. 그쪽은 우리 팀 골대예요.”

동자승 간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축구 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목)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상)과 5월 14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제2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찰 간 교류 확대 및 불교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 조계사, 부산 흥법사, 속초 신흥사 등 3개 사찰

서 29명의 동자승이 참가했다. 경기는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등 4개팀으로 나뉘어 각 팀 8명의 선수가 전·후반 10분씩 경기를 했다.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은 동자승들이 공을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 했다.

송목 스님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불교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불자들에게는 심신교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펼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표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행복바라미, 이제 연중 사업으로

날마다좋은날, 5월 12일 대전서 이음식 개최



5월 12일 대전 은행동 광장에서 열린 행복바라미 이음식에서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월 28일 시작된 불교계 기부문화 축제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1차 사업이 5월 12일 마무리됐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조계종 중앙신도회)은 12일 대전 은행동에서 행복바라미 이음식을 개최했다.

이음식은 연중모금캠페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1차 사업보고 및 이기흥 이사장의 향후 계획,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등 불교계 인사의 치사,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이기흥 회장은 캠페인에 동참한 포교사

단, 사회복지재단, 각 교구신도회를 비롯한 전국의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해 두해 진행하면 행복바라미가 한국의 5월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음식에서는 자원봉사를 진행한 동국대 108리더스 활동가 등에게 봉사활동 인증서가 수여됐다. 또 월경사 신도회와 함께 모금행사에 적극 참여한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이 우수활동조직으로 선정돼 감사패와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시·음악으로 희망을 노래하다

장애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 제6회 시낭송회 회향



홍현승 시인(왼쪽)은 해피 스님(오른쪽)과 함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와 '동산의 나무'를 낭송했고, 해피 스님은 '올바른 보시행'이라는 주제의 시를 낭독했다.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의 여섯 번째 시낭송회가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했다.

장애인 포교와 문학, 음악 등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 보리수 아래(회장 최명숙)는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6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당신이 희망이요, 행복입니다'를 개최했다. 보리수 아래는 이날 시(詩)와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선율로 공연장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문인인 김준엽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그늘 아래에서》 가운데 대표작 '그늘 아래에서'를 무대에 전동차를 타고 올라와 낭송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작은 꽃나무 한 포기/ 햇살 못 받아서/눈물 흘리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있네./ (중략)/ 처음에는 햇살 가득 들어와서/ 나 자신이 뿌리 내려 살다 보니/ 저 나무가 자라나서/ 햇살을 가리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바람에 저 나뭇가지가 꺾어져서/햇살이 가득 비추리라/그런 희망으로/난 오늘도 살아가네./” (김준엽 시 '그늘 아래에서' 中)

막대를 입에 물고 키보드 자판을 치며 시를 쓰는 김준엽 시인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처절한 자기성찰과 초탈을 위한 몸부림을 시로써 표현했다.

이어서 최향섭 시인이 '벽시계'라는 초대시 낭송을, 니르바나오케스트라가 다시 무대에 올라 '찬미의 나라' '디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이순애, 정훈소 시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대에 올라 시를 통해 관객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전했으며, 최명숙 시인이 쓴 '춘설'이라는 시에 가락을 넣어 노래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매월 문학모임 가져...삶의 원동력 '보리수 아래'는 2006년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의 제안으로 뜻있고 불교에 관심과 사랑이 있는 장애인들과 스님, 일반 불자·예술인들이 모여 결성됐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이 지도봉사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여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제사, 길상사, 청량사 등에서 법회와 문학모임, 산사체험, 사찰 순례 등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보리수 아래는 장애인 포교에 동기부여를 넣어주고 방향을 찾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공연에는 장애불자들이 가사를 쓴 노래발표, 시낭송,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계사 100주년 기념 인드라 스님 초청음악회, 화계사 산사음악회, 청각 장애인들의 모임 원심회 공연, 한국 뇌성마비복지회 시낭송회 등에도 참가해 장애불자들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보리수 아래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음반 제작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가사를 쓰고 일반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는 형식으로, 현재 3집까지 나온 상태다. 보리수 아래는 2011년에 발매된 세 번째 앨범 '비상, 그 날개 위에'를 2000대 제작해 보리수 아래 회원들과 후원자들을 비롯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무료 보시했다.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모임 형편상 무리한 사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리수 아래가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온 이유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음으로써 장애인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최명숙 회장은 “장애불자들이 참된 신생활을 하고 바른 포교활동을 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살려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겠다. 관심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교계 최초 유소년 야구단 조직

17일 부천 석왕사 룸비니 리틀 야구단 창단식

불교계 최초 유소년 야구단이 창단됐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이사장 영담)는 5월 17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석왕사에서 '룸비니 리틀 야구단(가칭)' 창단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룸비니는 “룸비니야구단은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소년 야구의 발전을 위해 창단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룸비니야구단’은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취약계층 어린이가 참여 확대 및 부모와 지역사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야구단은 MBC 청룡

구단의 포수 출신으로 MBC와 LG 트윈스 코치를 거쳐 춘천교 등에서 감독을 역임했던 최정기 씨가 초대 감독을 맡아 이끌게 된다.

야구단은 선수반과 취미반으로 나누어 구성. 선수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취미반은 주말에 완전 무료개방형으로 꾸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석왕사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는 이미 산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티볼 등 다양한 야구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석왕사와 룸비니는 앞으로 성인 사회인야구단의 창단을 통해 부모와 함께 하는 야구를 지향,



부천 석왕사는 '룸비니 리틀 야구단' 창단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연습장면.

이른바 가족단위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주니어 부의 창설 등 야구를 배워나가는 어린이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배울 예정이다.

석왕사는 ‘룸비니리틀야구단’ 첫째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5인승과 25인승 차량지원, 사무공간 및 장비관리 장소

등을 제공하여 야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석왕사는 “지속적으로 야구단의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지역사회 어린이 야구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모든 자금의 집행과 운영 등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번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 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요법 : 도테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3층)
042) 255-0734~5